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25/200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0학년도 9월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더호고  
 넷사름 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산림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므를 것가  
 ㉡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 울울리<sup>\*</sup>에 풍월주인 되어서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꺾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인 다룰소냐  
 시비에 거러 보고 ㉢ 정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sup>\*</sup> 하야 산일(山日)이 적적호디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靑)으란 오늘 호고 욱기(浴沂)란 내일 호새  
 아춤에 채산(採山) 호고 나조희조수(釣水) 호새  
 꺾 꺾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 아히드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 하야 ㉥ 시넷<sup>ㄹ</sup>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 정극인, 「상춘곡」 -

\* 울울리: 뽕뽕하게 우거진 숲.  
 \* 소요음영: 자유로이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림.

(나)

㉠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름이 모로더니  
 주모복거(誅茅卜居) 하니 벗님니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이를 상상호고 학주자(學朱子)를 흐리라 <1수>  
 일곡은 어디미오 ㉡ 관암에 희비츨다  
 평무(平蕪)에 너거드니 원산(遠山)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sup>\*</sup>을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2수>  
 이곡은 어디미오 화암에 춘만(春晚)커다  
 벽파<sup>\*</sup>에 곳을 띄워 야외로 보너노라  
 ㉢ 사름이 승지(勝地)를 모로니 알게 혼들 엇더리 <3수>

오곡은 어디미오 은병(隱屏)이 보기 도타  
 수변(水邊) 정사는 소쇄홈<sup>\*</sup>도 ㄹ이 업다  
 이 중에 강학(講學)도 흐려니와 영월음풍 흐리라 <6수>

칠곡은 어디미오 ㉣ 풍암에 추색(秋色) 도타  
 청상(淸霜) 얹게 치니 절벽이 금수(錦繡) | 로다  
 한암(寒巖)에 혼즈셔 안자 집을 잇고 잇노라 <8수>

구곡은 어디미오 문산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무쳐세라  
 ㉤ 유인(遊人)은 오지 아니호고 불 것 업다 흐더라 <10수>  
 - 이이, 「고산구곡가」 -

\* 녹준: 술잔 또는 술동이.  
 \* 벽파: 푸른 물결.  
 \* 소쇄홈: 기운이 맑고 깨끗함.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며 현실의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점층적인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여 회고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하여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조선 전기의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유되며,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갈래적 특성으로 인해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 관습화되었다.

- ① ㉠에서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청자를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동질성 회복을 권유하고 있다.
- ③ ㉢에서는 화자가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의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

18.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 ② 붓으로 그린 듯한 숲 속에서 봄의 흥을 노래하는 새를 바라보는 데에서 새에 대한 화자의 부러움이 드러나는군.
- ③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는군.
- ④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연과 화자의 일체감이 드러나는군.
- ⑤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데에서 화자의 고조되는 감흥이 드러나는군.

19. ㉠~㉦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거처인 ㉠을 나와 ㉡와 ㉢의 장소들로 옮겨 다니고 있다.
- ②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와 ㉤는 ㉥를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 ③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와 ㉣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나)의 화자는 자신이 ㉥에 터를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이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려 한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 ① 고산구곡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구곡이 작자와 ‘벗님’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겠군.
- ② 작품 창작 이후와 관련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③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참된 즐거움과 관련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음풍’이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⑤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애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